

거울 애정으로 뽀뽀 붙쳐서 잘 살아봅시다~~. 사랑해요 1312!!!
뽀뽀이

노독 이룩이 두강래, 나만 세자야. 난 역시 만능불자!
이젠 허공에 뜬 이데올로기를 향한 주의미한 햇살질이 아닌, 저 밑바닥에서부터
끓어 오르는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여성운동을 하고있다.

-- '1312' 뽀뽀사사!!!--

우리 웃으며 살아요!!!

텔레토비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 텔레비전에서 자주 본다.
- 폐지어 물려다닌다.
- 동형 지붕으로 만든 집을 주로 생활무대로 한다.
-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밥은 굶지 않는다.
- 색깔로 구별한다.
-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한다.
- 주로 입으로 먹고 사는데 가끔씩 몸으로 때우기도 한다.
- 자기들끼리 결정하고선 자기들끼리 매우 꿀거워하다.
- 사람인 척 한다.

☺☺ '1312'에는 뭔가

좋은 것이 있다!!☺☺

함께하고픈 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이리로...

018-568-1312, 015-7622-9971

여성주의 자치모임 '1312' 소식지

-99년 영남대 여성운동 첫걸음을 내딛으며-

--- '1312(일상시비)'는 ---

--- 여성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성주의가 너무나 아름다워 ---

---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여성들이---

--- 뭔가 신나는 일을 저지르고 싶어 모인 곳입니다. ---

'1312' 시비쟁이들은

일상 속에서 여성이,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모든 억압의 기제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에 대해 반기(反旗)를 들고자 합니다.

99년 5월

통권 9호

<남누리 북누리 사무치는 어머니여>

고정희

아하 사람아

여자 일생이 무엇이며 해방이 무엇인고
후천개벽 목숨줄이 다 제구실에 들어 있는지라
여자 위에 사람 없고 여자 아내 사람 없어
앞앞이 평등세상 이루는 삶인지라
여자 남자 사람으로 평등하게 살자 할 제
남누리 북누리 사무치는 어머니여,
내치소서 내치소서

원갓 갱권 내모소서

여자 위에 팽갓 친 가부장권 독재권신
아내 위에 가부라 튼 군사정권 폭력권신
며느리 위에 군림하는 남편우대 상전권신
딸들 위에 헛기침하는 아들유세 전통권신
여손 위에 눌러앉은 부계혈통 조상권신
천리로 방송하고 멀리 밖으로 예방하소서

여자 일생 우려먹는 오적권신

여자 일생 후려치는 억압권신

여자 일생 피 짜내는 착취권신

여자 일생 눈물 빼는 감옥권신

한칼에 목을 베고 단칼에 뿌리뽑아

허허공중 갯더미로 날게 하사이다

망성인없이 주저없이

지구 끝으로 내몰아주사이다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허허공중 갯더미로 날게 하사이다



●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여성문학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1312’는 가부장적 질서속에 녹아있는 높은 벽을 허물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언어로 대안문학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

하나, 자신의 경험 속에서 여성문제를 읽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에 시비걸기(‘1312’-일상시비)’를 꾸준히 할 것이다.

하나, 여성과의 연대는 우리 운동의 시작이며 완성이라고 확신하면서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실천한다.

하나,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가부장제를 넘어서는 여성문화를 형성한다.

라인숙교수님을 만나고...

『성과 사회』라는 솔직하고 열정적이고 지적인 강의로 전전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라인숙 교수님과 그녀를 사모하는 '1312'식구들이 5월 4일 만남을 가졌다. 선생님 의 인간적인 매력과 열정적인 화술에 두시간 내내 넋을 잃고 있었던 1312였다...

라인숙 교수님은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에 77학번으로 입학, 사회학(사회심리)을 전공하셨다. 그 시대 여성들이 으레히 그랬을 여자로서의 억압(어릴 때 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꼭지'였단다. 할머니께서 남동생 낳으라고 지어주심.)을 받고 있었던 20대 초반. 도대체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

여성학 공부를 하시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위에서 아무 반응이 없을 정도로 그 시대는 사람들이 여성학이 뭔지도 몰랐을 때였으니, 선생님의 의식이 그때부터 얼마나 진보적이었는가를 엿볼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행동파 라인숙 선생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보수적인 한국의 오타리를 벗어나 여성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셨고, 미국에서 공부한 많은 여성학 이론과 깨우침과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직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가정과 일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앉을까하는 호기심 어린 걱정이 숨머시 들었다. 그러나 선생님의 대답은 NO! 지금의 남편과 연애할 때 '이 남자라면 가정과 일 중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단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 적이 내부에 있음을 깨달으셨으니 그것은 바로 '교육'이었다. 그렇게 앞서는 의식을 가진 선생님도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죄의식을 느끼셨다니, '교육(한국의 가부장적, 유교적 교육)'이 역시 무섭긴 무섭다. 그러나 곧 완전히 극복하셨고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으셨다면, '뭐 대수냐'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요즘 학생들의 성의식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이내 걱정스런 얼굴로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옛날엔 차라리, 여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이행하면 되었기에 갈등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가부장제도 아래의 역할은 부정하면서 의식은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에 갈등이 더 많다는 얘기였다. 선생님의 강의 초기시절엔 수업중에도 벅벅벅벅 일어나 시비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하신다. 언뜻 들으면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이 있기라도 한 그때 학생들이 낫다는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 수긍하며 가만있는 것 같으나(진짜 수긍할 수도 있으나)생각과 실제의 차이가 크기에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많고 그래서 위태해

보인다는 말씀이었다. 의식 변화와 현실 변화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바뀌어 줘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내셨다.

당장 시장에서 나물캐다 파는 할머니에게 여성운동을 요구할 수는 없듯이, 모든 여성들의 이해관계가 겹칠 수는 없다는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예경'이란 기업의 여성 사장이 경영자 회의같은 곳에서는 어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사장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당당해야 힘없는 여자들이 힘을 낼 것 아니냐고 그건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씀에 또다시 '1312'는 끄덕끄덕...

여성억압에 대한 얘기로 좌제는 둘러졌고, 1312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먹고 살기 바쁘는데 왜 그런걸 하느냐, 남녀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시비냐는 남성들의 반응에 대한 불만들과 억압받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저마다 한마디씩 쏟아내었다. 선생님의 결론 역시 억압자체보다, 그것을 못 느끼는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앞에서도 얘기했듯 요즘 학생들이 그만큼 사회적 시각이 앞져진 것 같다고 하셨다. 남성들에 관해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선 당연히 못 느끼고, 설사 느껴도 뱉기 싫은게 당연한 거라는 얘기에 안타깝지만 모두 공감. 그나마, 지금 남자들은 못바뀌도 우리 아들, 딸들을 다르게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일 뿐이었다. 덧붙여, 여학생운동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체는 행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씀도 강조하셨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강하고 행사자체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좋을 것이라는 충고와 함께 '1312'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시며 이데올로기에 묶이지 말고 새롭게 여성운동을 재구성해나가는 모임이 되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셨다. 라인숙 교수님은 정말 멋진 여성이었다...

취재 : 찌가, 뿌리, 떠리, 강네

정리 : 찌가

'1312'와 함께하는 '相女'를 소개합니다.

相女(들) : 명사 1. 남성중심 가부장제에 순응하지 않고 그것에 일일이 시비를 걸고 다니며 가부장제 해체와 여성해방을 부르짖는 멋진 여성(혹은 집단)을 지칭하는 말
2.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학생 운동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연대체를 지칭하는 말 "대구 경북 여성주의 연대회의"-相女들"

-랑네 맘대로 사전 중에서-

「相女」(상녀)들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름의 꼬리표 때문에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드러나게 수 많은 불편(-을 넘어서서 억압이 많을 것이다.)을 감수해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이러한 불편/억압을 참고 사는 것만은 아니다. 일부의 여성들은 노력한다. 이런 여성들은 여태껏 혼자서 가부장제와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결코 산을 움직일 수 없다. 때문에 여성들은 모이고 있고 서로의 힘을 모아 남성중심사회에 카운터 펀치를 먹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경~相女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대구 경북이라는 여아 낙태율 1위인 보수적이고 폐쇄성 짙은 이 지역에서 가부장제에 짊어지고 있는 "相女들"은 98년 여름에 태동되어 99년 1월에 정식으로 발대식을 열었다. 4개 학교(경북대 사학대 어원, 계명대 여성주의 자치모임 'BUT', 영남대 여성주의 자치모임 '1312', 호가대 성정치 위원회)에서 각자의 활동하고 있던 "相女들"이 모여 학내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시각과 폭 넓은 사고로 대경지역 여학생 운동에 한 획을 그었다. 이제 2살바기인 "相女들"이지만 각 학교에서 버진 相女에게 학습한 휴식처가 되어준다. 그러나 "相女들"은 휴식처라는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세 ㄹㅇ~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를 다녀와서-

-- 짜가 --

3월 7일. 대구 여성회, 포항여성회. 대구 여성의 전화 언니들과 우리 대경 연대회의 '相女들'에서는 거지, 오버쟁이, 무계, 뽕뽕이, 짜가가 버스를 대절하여 한국 여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민회관 앞에 모였다. 아주머니들과 그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세대도 다르고, 개성도 각각인 사람들이 초면인데도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재밌게 서울까지 갈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기 때문 아닐까...

KBS홀안에 들어서니 통로에 많은 여성단체들의 테이블이 가득 차 있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세상 든든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근데 정말 볼게 많았다. 난 여성단체가 그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 다.)

김대중 대통령, 신낙균 장관, 손숙등, 쟁쟁한 인사들의 축하메세지로 식이 시작되었다. 여성운동의 걸림돌과 디딤돌을 뽑아 시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큰 KBS홀에 가득찬 사람들이 걸림돌에게는 분노를 디딤돌에게는 애정을 동시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뿌듯했다.

한영애, 신호범, 마고의 축하공연도 인상적이었으며, 각 여성단체의 축하공연도 소박하지만 많은 것을 공감하게 해 주었다. 식이 끝나고는 영등포까지 거리행진이 있었다. 기자들이 계속 따라오며 서터를 눌러내는데 역시 대구 촌녀이라 그런지 너무 신기했다. 꼭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대구로 돌아오는 그 긴 시간, 켈 젊은 나는 지쳐 자고 있는데, 자다 한번 일어나보니 난리가 났다. 완존히 묻지마 광광이었다. 언니들이 더 무섭다 니깐 ^^;... 역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 노는 것 같다. 어쨌든, 여성운동에 대한 가치관을 더욱 확립할 수 있게 힘을 더해준 뜻깊은 행사였다. 내년엔 다같이 감시다!!!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 '1312' 지난 움직임 알림 -

- 1월 23일 대구경북 여성주의 연대회의 '相女ㄴ들' 발대식
성서 계명대 앞 '하늘복2'에서 일일호프를 통해 '상년들'의 출범을 신고함.
- 2월 10일 양녀 환송회
'1312'의 대모(大母) 양녀언니가 더욱 넓은 공간에서 여성운동을 펼치기 위해 서울로 가심.
- 2월 26일 대경여성연대 '상년들' 스터디
경북대 사회대 여학생회서 모두 모여 여성주의를 공부함.
- 3월 5일 3.8세계여성의 날 행사
1. 대구-시민회관에서 진행. '相女ㄴ들'에서 퍼포먼스(위령제)를 준비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다. 짜가, 랑네, 뽕뽕이, 여율이 그 수고 많이 했다. 박수를... 짹짹...
- 3월 7일 3.8세계여성의 날 행사
2. 서울-3.8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 '상년들' 참여.
'1312'의 뽕뽕이, 짜가가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 3월 24일 99년 1학기 '1312' 첫 모임
99년 한해 사업계획, '1312' 내부 자리매김. ('1312' 정기모임은 매주 화요일 늦은 6시, '1312' 팀체계는 소식지팀, 문화팀, 성폭력팀, 연대팀, 학술팀, 사무팀으로 정비).
- 4월 3일 '相女ㄴ들' 모임.
경대 동문에서 맛나는 고기를 먹으며 한판 토론을 했다. 경대 사회대 여위의 신입생들도 만났다. 앞으로 다같이 잘~~ 살아보기로 다짐.
- 4월 8일 '1312' 해오름식.
뒤늦은 해오름식이었지만 우리 '1312'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 뿌듯. 양녀언니의 강연도 있었다. 사람들이 적어 안타까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는 결의를 다지며 안타까움을 달랬다. 이 면을 빌려서 해오

름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 해오름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꾸벅..

4월 24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일호프

4월 24일 '相女ㄴ들' 모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 보자는 결의를 하며 헤어졌다..

4월 28일 떠리, 음대 방문.

떠리가 음악대 문제로 음대에 들어가서 음대 여학생회0장을 만났다. 미적대던 음대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고자 문화자보를 쓰자는 제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음대여학에서 화장실 신문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제의를 해서 앞으로 화장실 신문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1312'와 음대 여학의 활동이 전개될 듯.

5월 1일 노동절. 서울역 민주노총 집회 참여.

서울역에서 4만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로 집회가 열렸다. '相女ㄴ들'('1312'는 떠리, 뽕뽕이)이 여성노동권확보를 위한 연대투쟁으로 참석하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여성이란 부분이 너무 왜소함을 깨닫고 더욱 우리의 힘을 키워야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5월 4일 라인숙 교수님 인터뷰.

교수님을 찾아 뵙고 인터뷰겸 인사를 드렸다.

널리알림)

● 여성영화제

언제 : 5월 11일 ~ 14일

늦은 8시

어디서 : 천마로 야외무대

● '1312'편 여성영화제

언제 : 5월 13일은

이른 10시 ~ 늦은 4시

어디서 : 인문관강당

동성애 영화 <파이어>

-- 문화일보 기자 오애리 --

인도의 한 여성감독이 만든 동성애영화를 둘러싼 논쟁이 문화적 억압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인도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영화의 제목은 <파이어(Fire)>.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파 메타 감독이 만든 이 작품은 이미 32개국에서 개봉되었고 14개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문제작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막상 인도에서 개봉되었을 당시 이 영화는 보수주의자들의 엄청난 비난은 물론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봄베이와 뉴델리 등지의 보수당인 쉬브 세나 당원들은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고, 비슷한 사태가 뉴델리, 캘커타 등에서 이어졌다. 감독은 물론 두 여느리 역을 맡았던 샤바나 아즈미와 나디타 다스는 테러를 피해 몸을 숨겨야만 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아 영화배급업자들은 잇달아 상영을 취소해버리기도 했고, 인도 정부는 뒤늦게 영화의 제심을 명령, 결국 문제가 됐던 몇 장면과 대사를 들어내는 조건으로 상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인도 영화계, 여성계, 문화계 인사들은 보수주의자들과 정부의 처사에 잇달아 항의하는 한편 문화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화 <파이어(Fire)>는 중산층 가정의 두 여느리가 사랑 없는 결혼생활 속에서 서로 의지하다가 애뜻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내용. 결국 이 애정관계는 두 사람을 몰래 훑쳐보던 하인에 의해 폭로되고 만다.

쉬브 세나당의 여성당원들은 성명서에서 "만약 모든 여성들이 육체적 욕망을 동성애로 해소한다면 결혼제도는 붕괴되고 인류의 재생산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타 감독은 "내 영화가 인도의 인구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시니컬한 반응. 그는 "인간의 고독과 여성의 자기 목소리 찾기야말로 영화의 진정한 주제"라며 "보수주의자들이 <파이어>를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동성애 표현 때문이 아니라 독립적인 여성상이 가부장적인 인도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의 저명한 여성운동가인 리투 메노드는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기고한 글에서 "집권보수층이 찬양하는 인도의 전통이란 여성의 종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영화계는 <파이어> 지지운동으로 모처럼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연 여배우 아즈미는 "몇몇 사람이 모든 인도인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결정한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문화인들은 정부의 문화보조정책을 촉구하는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 feminist journal 'it' 99년 봄호에서 발췌 -

새로 들어온 새끼마녀 인사드립니다.

김현정(쁘리)

영어교육과 99학번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간 맞춰 뛰하는 것 배부른데 똥 먹는 것, 늘 뜨자마자 찬소리 듣는 것있다.

최저는 건기 특기는 불의기 빠기(그러나 전혀 의도성 없음) 장래희망을 학교 세우는 것. 그 계획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불철주야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제발로 찾아온 건 아니지만 13/2월고 나니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네요. 후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은 지면을 팔만큼 조용한 인물이 아니므로 이 정도로 마칠것입니다. 차차 불씨로, 말쑥로 보여드리고 세상의 모든 어성들 힘내시길. 제가 있습니다. puhahaha!!

-99년 영남대 여성운동을 시작하며, 우리의 결의-

쁘리

영대 13/2 발리식에 멋모르고 달려 왔다가 강제(?)로 가입된 인물. but 강제로 가입되 놓고 웃기지 않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음. 정말 잘 들왔다 있음.

랑네

항일이 너무 많다. 바쁘다 바빠....

찌리

알게 되어 너무 기분 이태올로기가 있다면 그건 여성주의!

여을

벌써 한학기의 반이 지났다. 지금까지 누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13/2에 조금 소홀해졌거 같고 내 마음속에서 또 부담을 지니고 있었던 거 같다. 조금 있을 영화제에서는 열심히 뛰어야 겠다. 열심히 합시다!

짜가

소식지를 처음 맡은데다 라고난 어유로움/사실 게으르다./땀에 취위사람들이 참 속리했지 싶다. 이렇게 누사하 나올수 있도록 도와줄 13/2식구들/특히 찌리 언니/넋 고맙습니다. 글고 소수정예라서 힘들고 빠고르긴 하지만, 그만큼 러 프